

門類本 杜甫詩集을 통해 본 知的 전통의 균열*

최 석 원**

<目次>

- | | |
|---------------------------|------------------------------|
| I. 杜詩를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 | III. 杜詩를 활용하다 - 門類本 杜甫詩集의 특징 |
| II. 杜詩를 분류하다 - 역대 門類本の 간행 | IV. 전통적 시 읽기 방식 “知人論世”의 균열 |
| | V. 나가며 |

I. 杜詩를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

“시인 이래 두자미만한 자가 없다.”¹⁾고 한 元稹의 평가가 무색하게도 唐代 杜甫詩集의 유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唐代 문인인 樊晃의 기록에 의하면 강남 지역 문인들에게 전해진 杜甫의 작품은 극히 일부 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²⁾ 그렇기 때문에 당시 杜甫의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杜詩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宋代 杜甫詩集에 대한 정리가 본격화된 시점과 궤를 함께 한다. 王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1) <唐檢校工部員外郎杜君墓係銘>: “詩人以來, 未有如子美者.” 華文軒 等編, 《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 杜甫卷》, 北京, 中華書局, 2001, 15쪽.

2) <杜工部小集序>: “江左詞人所傳誦者, 皆公之戲題劇論耳, 曾不知君有大雅之作.” 華文軒 等編, 《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 杜甫卷》, 北京, 中華書局, 2001, 7쪽.

堯臣의 《崇文總目》과 《宋史·藝文志》의 기록에 따르면 宋代에 비로서 다양한 판본의 杜甫詩集이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³⁾ 그와 함께 王洙의 《王內翰註杜工部集》을 비롯한 주해본 및 다양한 형태의 杜甫詩集이 정리되고 편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러한 杜詩 문헌의 정리는 곧 杜詩에 대한 평가가 재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⁴⁾

이후 지금까지 출판된 杜甫詩集들은 물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작품의 편차 방법에 관련하여 이들을 거칠게 분류하자면 크게 두 가지의 형식으로 귀결된다.⁵⁾ 먼저 編年式 체계를 들 수 있다. 杜甫詩集의 경우 대부분은 이러한 編年式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清代 문인인 仇兆鰲가 《杜詩詳註》에서 “연도에 따라 편차하여야 그의 인생 역정과 인정이 모이고 흠여짐, 세상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볼 수 있다”⁶⁾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孟子가 설파한 “知人論世”⁷⁾라는 문학 비평의 전통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編年을 통한 杜詩 이해의 모습은 비단 杜甫詩全集에서 뿐만 아니라 宋代 呂大防에 의해 처음 시작된 年譜, 근대 이후 주로 나타나는 傳記 제작에서도 확인된다.⁸⁾ 편년 이외의 杜甫詩集을 구성하는 또

3) 이영주 외 지음, 《死不休, 두보의 삶과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322쪽.

4) 일찍이 張忠綱을 비롯한 4인의 편자가 참여한 《杜集敍錄》(濟南: 齊魯書社, 2008)에서는 中唐이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杜詩관련 문헌들을 포함한 1,261종에 대한 서지사항을 정리한 바 있다.

5) 王水照 主編의 《宋代文學通論》에서는 편차방식에 따라 編年, 分類, 分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다만 分體의 경우 시체에 따라 분류한 뒤 또 다시 編年 혹은 分類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작품의 편차 방식을 編年과 分類의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王水照 主編, 《宋代文學通論》,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386쪽.

6) “依年編次, 方可見其平生履歷, 與夫人情之聚散, 世事之興衰.” 仇兆鰲 註, 《杜詩詳註》, 北京, 中華書局, 1999, 22쪽.

7) 《孟子·萬章》: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 《孟子》, 서울, 보경문화사, 1998, 184쪽.

8) 謝思焯은 “知人論世”의 전통적 인식이 작용하여 北宋 이후 출현한 개별 문인

하나의 방식은 바로 門類이다.⁹⁾ 이는 사물의 특성에 근거하여 같은 소재를 사용한 작품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일컫는데,¹⁰⁾ 다만 清代 문인 浦起龍이 “杜甫 시를 엮는 데에는 編年式이 가장 좋으며, 고체시와 근체시와 같이 시체로 나누는 것이 그 다음이며, 分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¹¹⁾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編年の 체례에 비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杜甫詩集 가운데 門類의 형식을 취한 것은 宋代에서부터 明代까지 총 11종에 불과하며,¹²⁾ 심지어 清代에는 門類本 杜甫詩集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역대로 杜甫詩集 편찬 과정 중 門類 체례는 널리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門類本은 전통적인 編年の 방식과는 다른 杜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類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동양의 지식 배열과 분류의 면모가 시집의 편집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 門類本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진아의 <宋代 《杜集》 간행 상황에 대한 소고>에서처럼 시대별 杜甫詩集에 대한 문헌적 고찰 과정 속에서 각각의 門類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이 모두는 杜甫 문헌에 대한 종합적 고찰일 뿐 門類本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⁴⁾ 물론 王水照 主編의 《宋代

들의 年譜가 등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謝思煒, 《唐宋詩學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2004, 85쪽.

- 9) ‘門類’ 이외에도 ‘分類’ 또는 ‘類編’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본고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門類本’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10) 《漢語大詞典》: “依照事物的特性把相同的集中在一起而分成的類.”
- 11) “編杜者, 編年爲上, 古近分體次之, 分門爲類者乃最劣.” 浦起龍 著, 《讀杜心解》, 北京, 中華書局, 2010, 8쪽.
- 12) 이 중에는 문헌이 일실되어 목록 혹은 서문 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장을 참고할 것.
- 13) 이는 周采泉의 《杜集書錄》(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과 張忠綱 외 4인이 編著한 《杜集鈔錄》(濟南, 齊魯書社, 2008)의 목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 14) 고진아, <宋代 《杜集》 간행 상황에 대한 소고>, 《중국연구》 30집, 2002,

文學通論》에서는 類編詩集을 통해 宋詩에 나타나는 제재의 활용 양상들을 고찰한 바 있는데, 이는 門類本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이루어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門類의 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나 함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¹⁵⁾ 이에 본고에서는 杜甫詩集 가운데 門類本으로 간행된 문헌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해당 문헌들의 특징들을 고찰함으로써 杜詩 해석사에 있어 門類本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類書로부터 이어져온 지식의 분류와 지식의 체계화 과정이 杜甫詩集의 편찬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입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 전통 시기 杜詩를 매개로 한 지식의 형성과 그 활용의 일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杜詩를 분류하다 - 역대 杜詩 門類本の 간행

門類式 杜甫詩集은 宋代 문인인 陳浩然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일찍이 蔡夢弼은 고시와 근체시를 분석하여 분류한 杜詩集을 陳浩然에게서 건네받았다고 한 바,¹⁷⁾ 이것이 杜甫詩集 門類本の 시작이라고 하겠다. 다만, 陳浩然의 門類本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어 그 실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후 宋代에 출판된 門類式 杜甫詩集은 총 5종인데, 《門類杜詩》, 《門類增廣十註杜工部詩》, 《分類集註杜工部詩》, 《集千

51쪽~53쪽.

王永波의〈明代杜詩學研究失誤述評〉(《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6年第4期)에서는 明代 주요 杜詩 문헌 가운데 하나로 門類本인 邵寶의《分類集註杜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門類本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 15) 王水照 主編, 《宋代文學通論》,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383쪽~399쪽.
 16) 門類本の 기원과 그 역사적 변천과 관련하여서는 王水照 主編의《宋代文學通論》(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383쪽~399쪽)을 참고할 것.
 17) 〈杜工部草堂詩箋·序文〉: “今滋退休田里, 始得陳君浩然授予子美詩一編 乃取古詩近體, 析而類之, 使學者悅其易覽, 得以沿其波而討其源也。”

家註分類杜工部詩》, 《分類杜詩》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門類杜詩》는 徐宅(字 居仁)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편찬자인 徐宅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門類杜詩》 역시 전하고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후 黃鶴의 주석과 劉辰翁의 批點이 첨가되어 완성된 《集千家註分類杜工部詩》의 저본으로 활용되었던 바,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門類杜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集千家註分類杜工部詩》 이외에도 《門類增廣十註杜工部詩》과 《分類集註杜工部詩》 역시 동일한 분류법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 모두는 《門類杜詩》가 宋代 門類式 杜甫詩集의 주요 저본으로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宋代 門類本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分類集註杜工部詩》로, 이는 杜甫의 시를 총 72개의 門으로 나누어 총 1388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宋代 門類式 杜甫詩集의 편찬 상황을 개괄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宋代 간행된 門類式 杜甫詩集¹⁹⁾

서 명	편찬자	관본상황	비 고
門類杜詩	徐宅	逸失	
門類增廣十註杜工部詩(*)	闕名	25卷	이 중 6卷만이 현존
分類集註杜工部詩	闕名	25卷	
集千家註分類杜工部詩	闕名	25卷	徐居仁 編次, 黃鶴 補注
分類杜詩	何南仲	逸失	

18) 《集千家註分類杜工部詩》의 실제 편찬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관본에는 徐居仁 編次와 黃鶴 補注로 표기되어 있음을 통해 徐居仁의 편차가 차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9) 〈표 1〉과 〈표 2〉는 周采泉의 《杜集書錄》(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과 張忠綱 외 4인이 編著한 《杜集書錄》(濟南, 齊魯書社, 2008)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표기한 것이다.

明代의 門類式 杜甫詩集의 출판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明代 출간된 門類式 杜甫詩集은 총 6종으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明代 간행된 門類式 杜甫詩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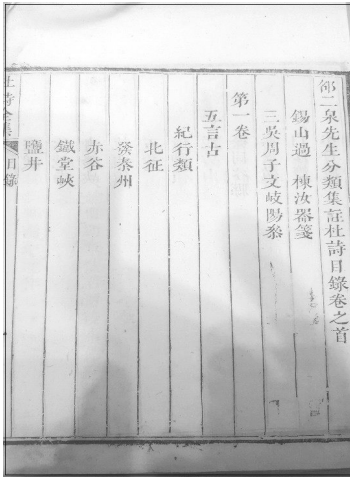
서명	편찬자(출신지역)	간행시기	판본상황
杜工部分類詩(*)	李齊芳(江蘇)	1574년	10卷
分類集註杜詩	邵寶(江蘇)	1592년	23卷
杜少陵七律分類	過棟, 邵寶	?	逸失
分類杜詩	徐楫(福建)	1600년?	逸失
杜詩分類全集	傅振商(河南)	1612년	5卷
杜工部七言律詩分類集註(*)	薛益(江蘇)	1641년	2卷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明代의 門類式 杜甫詩集의 간행 상황은 宋代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중 《分類集註杜詩》를 편찬한 邵寶에 대해 王穉登은 “무릇 두보의 시에는 文莊(邵寶의 諡號)이 있고, 毛詩에는 考亭(朱熹의 別號)이 있다”²⁰⁾라고 평가한 바 있고, 清代의 주요 杜詩 주석서인 仇兆鰲의 《杜詩詳註》에도 《分類集註杜詩》의 주석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分類集註杜詩》는 明代 널리 활용되었던 杜甫詩集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²¹⁾ 《分類集註杜詩》는 宋代 門類式에 비해 분류의 번다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데, 《分類

20) 〈刻杜詩分類集註序〉: “夫杜詩之有文莊, 毛詩之有考亭.”

21) 《分類集註杜詩》에 대해서는 다른 이가 邵寶의 이름을 가탁해 편집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王永波는 洪業이 《杜詩引得》을 통해 《分類集註杜詩》가 누군가에 의해 가탁된 것이라고 한 설명과 周采泉이 《杜集書錄》을 통해 書商인 周子文이 邵寶의 이름에 가탁하여 편집한 것이라는 설명을 인용하면서도 여러 차례 해당 문헌의 판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후대의 杜詩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치가 인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王永波의 〈明代杜詩學研究失誤述評〉,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年第4期, 39쪽.

集註杜詩》에서는 우선 杜詩를 古體詩, 歌行, 五言絶, 七言絶, 五言律, 七言律의 시체별로 분류한 뒤 각 시체별로 조목을 설정해 56門으로 분류하고 있다.²²⁾ 고체의 경우 권1부터 권12까지 총 31門으로, 가행은 권13부터 권14까지 총 16門, 오언절구와 칠언절구는 권15에서 각각 1門, 4門으로, 오언율시는 권16부터 권 21까지 29門, 칠언율시는 권22부터 권23까지 18門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각 시체별 분류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分類集註杜工部詩》에서 설정한 ‘陂池門’이나 ‘溪潭門’을 ‘山河門’으로, ‘舟楫門’과 ‘梁橋’을 ‘舟橋門’으로 통합한 것이나 해당 작품이 많지 않은 ‘病疾門’, ‘宮詞門’, ‘隣里門’ 등을 다른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분류의 번다함과 중복되는 宋代 門類本의 병폐를 시정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明代 門類式 杜甫詩集 가운데 邵寶의 《分類集註杜詩》의 항목과 傅振商의 《杜詩分類全集》 목록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림 1〉 邵寶의 《分類集註杜詩》²³⁾



〈그림 2〉 傅振商의 《杜詩分類全集》²⁴⁾

22) 각 시체별 중복되는 항목은 총합에 산입하지 않았다.

2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소장본. 해당 판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邵寶의 門類本에는 작품 뒤 주석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해당 두 문헌은 목록별 수록 작품, 시제 뒤에 수록한 해제 등 기본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傅振商은 서문에서 “從舊分類彙政(옛 분류를 따라 모아 바로잡았다)”²⁵⁾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 이는 邵寶의 門類本 항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傅振商이 밝히고 있듯 明代의 門類本은 宋代 설정된 항목들의 번다함을 줄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근본적으로 宋代의 분류 항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明代에 접어들면서 門類本의 형태가 전집에서 특정 시체만을 수록한 門類本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杜少陵七律分類》와 《杜工部七言律詩分類集註》인데, 이들은 칠언율시만을 대상으로 한 門類本이다. 물론 《杜少陵七律分類》는 현재까지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없지만, 薛益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杜工部七言律詩分類集註》는 《杜集敘錄》에 의하면 칠언율시 총 151수가 紀行, 述懷, 懷古 등 총 32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사실 기존의 논의에서 밝히고 있듯 門類本은 검색의 용이함이라는 실용적 필요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듯 7언 율시만을 수록한 門類本의 출현은 실제 作詩 과정에 있어 효율적인 杜詩 검색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明代의 칠언율시 門類本의 출현은 門類本이 지니고 있는 실용성을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木板本(中國). 발행사항: 中國: [刊寫者未詳], 발행연도: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目錄1冊, 23卷23冊, 共24冊: 四周雙邊 半郭 18.0×12.7cm, 有界, 半葉 11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4.1×15.6cm.

24) 규장각소장본. 해당 판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木板本. 발행사항: [刊地未詳]: [刊者未詳], 발행연도: [萬曆46年(1618)序], 형태사항: 卷首, 5卷, 合5冊; 31.4×21cm.

25) 傅振商, 《杜詩分類全集》, 규장각 소장본.

26) 張忠綱 외 4인 編著, 《杜集敘錄》, 濟南, 齊魯書社, 2008, 214쪽.

Ⅲ. 杜詩를 활용하다 - 門類本 杜甫詩集의 특징

일찍이 王國維는 《分類集註杜工部詩》의 跋文을 통해 “두보의 시는 반드시 編年本으로 읽어야 한다. 門類本은 가장 한스러울 만하다.”²⁷⁾고 한 바 있다. 이는 “知人論世”라는 전통적인 문학 관념의 강력한 자장 속에서 작품을 범주화하고자 했던 門類本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宋代文學通論》에 따르면 門類本은 시와 부 각각 23류, 15류로 나눈 바 있는 《文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編年本과 함께 문헌의 편집 과정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²⁸⁾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역대 門類本 杜甫詩集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杜詩에 실용성을 덧입히다-소재를 중심으로 한 杜詩 분류

역대 門類本 杜甫詩集의 특징으로는 먼저 분류 항목의 설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宋代에 간행된 《分類集註杜工部詩》의 경우 총 72門이 설정되어 있고, 明代 주요 門類本에서는 宋代 門類本의 번잡함을 최소화하고자 53門으로 축소하여 항목을 설정해두고 있다. 사실 宋代 門類本에서 설정한 항목들은 그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분류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²⁹⁾

27) “杜詩須讀編年本，分類本最可恨。”

28) 王水照 主編, 《宋代文學通論》,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386쪽.
周采泉 역시 分類 편차는 《文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면서, 宋代 杜詩 門類本은 너무 번다해졌고 이로 인해 清代 門類本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周采泉, 《杜集書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36쪽.

29) 莫礪鋒은 《分類集註杜工部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 문헌에서의 분류는 비록 편리하기는 하지만 분류에 있어 정교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奉送崔都水翁下峽〉의 경우 《分類集註杜工部詩》에서는 해당 작품을 도수사였던 외숙인 최씨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外族’門으로 분류하고

실제 《分類集註杜工部詩》에는 ‘舟楫門’과 ‘泛江門’, ‘燕飲’과 ‘醉歌門’, ‘懷古’와 ‘古跡門’ 등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그 대표적인 예로 ‘醉歌’門으로 분류된 작품 중 〈鄭駙馬宅宴洞中〉을 살펴 보도록 한다.

主家陰洞細烟霧,	공주의 집 그늘진 동혈에는 얽은 안개 끼어 있고
留客夏簟青琅玕.	객을 머물게 하는 여름 대자리는 푸른 옥돌 빛이네.
春酒杯濃琥珀薄,	얇은 호박 술잔에 봄 술 진하고
冰漿碗碧瑪瑙寒.	차가운 마노 주발에 얼음물 푸르네.
誤疑茅堂過江麓,	강기슭 초가를 지나는가 싶었는데
已入風磴靈雲端.	구름 끝에 파문힌 바람 부는 돌계단에 이미 들어섰네.
自是秦樓壓鄭谷,	본시 진루가 정곡을 내리누르고 있어
時間雜佩聲珊珊.	때때로 패옥 소리 찰랑거리며 들려온다네.

이 시는 天寶年間 杜甫가 鄭駙馬의 연화동에서 여름날 잔치를 즐기며 지은 작품이다.³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分類集註杜工部詩》에서는 이를 ‘醉歌’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류 항목인 ‘燕飲’門과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燕飲’門에 분류되어 있는 〈崔駙馬山頂宴集〉과 같은 작품이나 ‘醉歌’門으로 분류된 〈陪王侍御同登東山最高頂宴姚通泉晚攜酒泛江〉 등의 작품들 역시 분류의 경계가 불분명한데, 이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류 항목 설정이 초래한 결과라고 하겠다.³¹⁾ 明

동시에 외숙을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送別’門으로도 분류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莫礪鋒, 《杜甫詩歌講演錄》,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72쪽~73쪽.

30) 《讀杜心解》: “이는 여름날의 잔치로, 묘사해낸 것에는 모두 그늘지고 서늘한 풍색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더위를 잊게 한다.(此夏宴也. 寫來都有陰涼之色, 令人忘暑.)” 浦起龍, 《讀杜心解》, 北京, 中華書局, 2010, 598쪽.

31) 이 밖에도 《分類集註杜工部詩》에는 분류 항목과 해당 작품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音樂’門에 제시되어 있는 〈江南逢李龜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江南逢李龜年〉은 떠돌던 신세였던 杜甫가 長安에서 자주 만났던 李龜年을 담주에서 뜻밖에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쇠락한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이다. 물론 李龜年이 음악으로 명성을 알린 인물이라고는 하지

代의 門類本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특히 三吏三別에 대한 분류 항목의 설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흔히 三吏三別이라 칭해지는 6편의 작품의 경우 邵寶와 傅振商의 분류에 따르면 〈新婚別〉만 ‘姻戚’門에 배열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時事’門으로 분류하였다. 주지하듯이 〈新婚別〉은 막 혼례를 치른 부부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비극적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나머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당나라의 불안정한 사회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新婚別〉을 제외한 다른 5편의 역시 杜甫가 경험한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新婚別〉만을 별도의 분류 항목으로 편성한 것은 〈新婚別〉은 ‘혼인’이라는 소재에 의거한 분류인데 반해 나머지 5편은 소재가 아닌 주제에 의한 분류하는 점에서 항목 설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³²⁾ 사실 함축성을 요구하는 시 문학 영역에서 한 작품을 하나의 항목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닐 텐데, 이와 관련하여 明代 문인인 潘應詔가 남긴 《杜工部分類詩》의 서문에는 李齊芳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참군이 말하기를 “〈秦州〉는 진주만을 기록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고,

만 해당 작품에서 음악과 관련한 언급은 제 2구의 “崔九堂前幾度聞”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구절 역시 과거 자주 李龜年의 노래를 들었음을 회상하는 것이어서 음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32) 明代 대표적인 두 門類本 역시 항목 설정과 작품의 배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는데, 〈夢李白〉의 경우가 그러하다. 仇兆鰲의 설명에 따르면 乾元 2년 杜甫가 秦州에 머물고 있을 때 李白이 李璘의 난에 연좌되어 夜郎으로 유배가게 된 사실을 듣고 李白을 걱정하며 쓴 시인데, 邵寶와 傅振商은 이를 ‘時序’門에 배치하고 있다. 해당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時序와 관련한 것을 찾을 수 없으며, 동일 항목에 분류된 작품들(〈春歸〉, 〈傷春五首〉, 〈夏月嘆〉)과 비교해보아도 〈夢李白〉은 ‘時序’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王永波는 邵寶의 《分類集註杜詩》가 지닌 병폐는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항목들과 경계가 불분명한 항목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王永波, 〈明代杜詩學研究失誤述評〉,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年第4期, 39쪽.

〈秋興〉은 가을을 읊은 것만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여 시를 지은 것이 같지 않은데, 시기와 장소가 우연히 맞아 함께 기록해 둔 것이다. … 어찌 하나의 항목으로 몇 작품들을 묶어두겠는가? …”라고 하였다.(參軍曰, 秦州非止紀秦也, 秋興非盡詠秋也. 其感賦不同, 而時地偶值, 故總識之. … 豈必括數首於一目? …)³³⁾

李齊芳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양한 소재와 감정이 뒤섞여 있는 작품을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宋과 明代에 간행된 門類本을 일람하면 전체를 관통하는 항목 설정의 일관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두보의 작품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春望〉과 〈秋興〉의 경우 宋과 明의 門類本에서는 모두 ‘時序’ 門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실 각각의 작품에서 봄과 가을은 단지 시간적 배경일 뿐이고, 실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杜甫가 처한 계절적 배경과 당나라의 국운을 절묘하게 배합하여 시인이 겪은 걱정과 애환이 표현되어 있다. 〈八陣圖〉의 예 또한 그러하다.³⁴⁾ 《分類集註杜工部詩》에서는 〈八陣圖〉를 ‘軍旅’ 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실제 작품을 살펴보면 이는 군대와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한 신하 제갈량에 대한 추억과 이에 대한 시인의 동감을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⁵⁾

33) 周采泉, 《杜集書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133쪽.

34) 〈八陣圖〉: 功蓋三分國, 名成八陣圖. 江流石不轉, 遺恨失吞吳.(공은 세 개로 나뉜 나라를 덮을 정도이고, 명성은 팔진도로 이루었네. 강은 흘러도 돌은 굴러가지 않는데, 남겨진 한은 오나라 삼키지 못한 것이다.)

35) 仇兆鰲는 작품의 제 4구의 의미에 대해 크게 4가지의 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杜詩詳注》: “지금 살펴보건대 아래 구는 4가지 설이 존재한다. 오나라를 멸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는 것이 구설이다. 선주가 오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던 것이 한이 되었다고 한 것이 동파의 설명이다. 선주가 동쪽 오나라를 정벌하려 하는 것을 막지 못해 스스로 한스럽다고 한 것이 두역과 주화명의 설명이다. 진법을 사용할 수 없어 오나라를 삼키려다 실패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 유탁의 설명이다.(今按下句有四說, 以不能滅吳爲恨, 此舊說也. 以先主之征吳爲恨, 此東坡說也. 不能制主上東行, 而自以爲恨, 此杜臆朱注說也. 以不能用陣法, 而致吞吳失師, 此劉氏之說也.)” 仇兆鰲, 《杜詩詳注》, 北京: 中華書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자면, 역대 杜甫詩集 門類本의 분류 항목 설정은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단순한 소재별 분류, 묘사 대상에 대한 분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의 설정은 編年을 통해 두보의 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해당 소재의 시적 구현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열람과 학습이라는 실용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즉 門類本의 등장은 杜詩를 읽는 것에서 杜詩를 배우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적 구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상업적 출판과의 연계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宋代와 明代 간행된 門類式 杜甫詩集은 각자 몇 가지 공통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宋代의 門類本은 모두 편찬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宋代의 門類本 가운데 《門類杜詩》를 제외하면 3종의 門類本 모두 편찬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門類杜詩》 역시도 편찬자가 徐宅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동시대 문인인 陳振孫은 徐宅이 생애에 관해 상세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편찬자의 이름만 밝혀져 있을 뿐이다. 宋代 門類本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두 集註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門類增廣十註 杜工部詩》에서는 蘇軾을 비롯한 9명의 杜詩 주석과 ‘新添’의 형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주석을 부기하고 있으며, 《分類集註杜工部詩》에는 무려 149명의 주석이 병기되어 있다.³⁶⁾ 그런데 해당 門類本에 수록되어 있는 주석 가운데에는 蘇軾의 이름을 가탁한 僞註가 대량으로 수록되어 있는 바, 이는 곧 宋代 門類式 杜甫詩集의 경우 그 편찬 과정이 정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³⁷⁾ 이렇듯 편찬자의 불분명함 그리고 정확성이 검증되지

1999, 1279쪽.

36) 이영주 외 지음, 《死不休, 두보의 삶과 문학》, 336쪽과 340쪽 참고.

37) 莫礪鋒은 《分類集註杜工部詩》에 나타나는 避諱의 경향을 통해 해당 문헌의

많은 다양한 주석들을 병기하고 있다는 宋代 門類本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단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南宋 시대에 형성된 출판시장의 확대와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미 僞蘇注와 관련하여 《吳郡志》에서 王琪가 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杜甫詩集을 간행하였다는 기록과 高宗이 전란으로 인해 유실된 서책들을 상금을 걸어 널리 구하고자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³⁸⁾ 즉 南宋 代 이미 서책이 비단 학문적 수단에서 머물지 않고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僞蘇注가 등장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門類本은 작품의 주된 소재를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작품들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南宋 시대 서책의 경제적 가치 상승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門類本의 출현은 杜詩를 하나의 상품화하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³⁹⁾

편찬 시기를 1195년에서 1224년 사이로 고증한 바 있다. 僞蘇注의 출현에 대해서 역시 그 뚜렷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나 대략 1142년에서 1147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1150년 이후 이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分類集註杜工部詩》의 편찬 당시 僞蘇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分類集註杜工部詩》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莫礪鋒의 《杜甫詩歌講演錄》, 70쪽~72쪽 참고. 僞蘇注와 관련하여서는 莫礪鋒의 《唐宋詩歌論集》(南京: 鳳凰出版社, 2007)과 최석원의 《杜詩 해석 그 날조의 역사》(《중국문학》 제82집, 2015)를 참고.

38) 최석원, 《杜詩 해석 그 날조의 역사》, 《중국문학》 제82집, 2015, 119쪽~122쪽.

관련 기록은 아래와 같다.

“嘉祐中, 王琪以知制誥守郡, 大修設廳, 規模宏壯, 假省庫錢數千緡. 廳既成, 漕司不肯除破, 時方貴杜集, …(中略)… 印萬本, 每本爲直千錢, 士人爭買之.” 仇兆鰲, 《杜詩詳註》, 2242쪽.

《宋書》卷二百二: “高宗移蹕臨安, 乃建秘書省於國史院之右, 搜訪遺闕, 屢優獻書之賞, 於是四方之藏, 稍稍復出.”

39) 고진아는 宋代 杜甫詩集 중 門類本에 대해 설명하면서 《門類增廣十註杜工部詩》와 《集千家註分類杜工部詩》가 書商들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필자 역시 이러한 가능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宋代의 門類本과 마찬가지로 明代 門類本 역시 간행 시기와 관련한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열거한 明代 간행 門類本 杜甫詩集의 간행시기를 살펴보면, 薛益의 《杜工部七言律詩分類集註》를 제외하고 대부분 16세기 후반에 집중되어 있다. 일찍이 이노우에 스스무는 《중국 출판문화사》를 통해 강남 지역의 상업출판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활성화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⁴⁰⁾ 杜詩 門類本의 대부분이 16세기 후반부에 주로 출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들의 간행 역시 상업 출판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明代 門類本 대부분은 白文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徐槲의 아들인 徐(火+勃)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상에 두보 시가 전해지는 것으로는 수백 가지 판본이 있는데, 전주한 것은 그 중의 10분의 7이고, 편년한 것이 10분의 3이며, 분류한 것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류에 따라 나누고 주석을 첨가하지 않은 것은, 간단하면 서도 열람하기가 쉬워, 먼저 선비들이 어릴 적 책을 펼쳐 외우던 것이다. (世傳杜詩, 不下數百本, 箋注者十之七, 編年者十之三, 分類者十之一. 此例分類無注, 簡而易覽, 先君子少時所披誦者.)⁴¹⁾

邵賈의 《分類集註杜詩》를 제외하면 明代 간행된 대부분의 門類本은 白文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 杜詩가 열람과 참고의 대상 강조되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곧 상업적 출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清代에 접어들면서는 門類本의 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宋과 明의 門類本 杜甫詩

밝힌다. 고진아, 〈宋代《杜集》간행 상황에 대한 소고〉, 《중국연구》 30집, 2002, 49쪽~50쪽.

40) 이노우에 스스무(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옮김), 《중국 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년, 291쪽.

41) 張忠綱 외 4인 編著, 《杜集鈔錄》, 濟南: 齊魯書社, 2008, 175쪽에서 재인용.

集의 간행은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출판 시장의 확대 그리고 상업 출판의 시작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탑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전통적 시 읽기 방식, ‘知人論世’의 균열

宋代 이후 인쇄 출판 기술의 급성장은 다양한 형태의 杜甫詩集 간행을 가능케 했다. 일찍이 張慧玲은 역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두보 관련 문헌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바 있는데,⁴²⁾ 張慧玲의 자료 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全集本	選本	全注本	選注本	選評本	律詩選本
宋代	25	31	15	26	4	0
明代	17	97	5	51	20	47
清代	40	221	21	62	85	51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宋과 明代 간행된 杜甫詩集 사이에는 몇 가지 경향성이 드러난다. 먼저, 全集類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행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표에 의하면 全集本의 경우 宋代에는 총 25건이던 것이 明代로 접어들면서는 17건으로 감소하였고, 全注本 역시 15건에서 5건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그에 반해 選本이나 選評의 간행은 明代에 접어들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宋代에는 존재하지 않던 율시만을 대상으로 한 선집이 明代에는 총 47건이나 간행되었음은 당시 율시와 근체시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특화된 杜詩集이 출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인쇄기술의 발전과 출판 시장의 확대 등에 힘입은 바

42) 張慧玲, 〈明代杜詩文獻的傳播概貌〉, 《文獻研究》 第3期, 2017, 113쪽~114쪽.

가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와 더불어 문학 관념의 변화 역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張法은 明清代의 주요 미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독자의 능동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좋은 작품은 좋은 작용을 발휘하고, 나쁜 작품은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는 중국의 주류적 관점이 明清代에 이르면서 점차 “독자는 각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스스로 얻는다(讀者各以其情而自得)”고 하는 독자의 능동성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⁴³⁾ 작품의 부분을 선택하거나 작품 하나하나에 평가를 해야 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전시자 혹은 평시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독자로서의 능동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杜詩分類全集》의 傅振商이 남긴 서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傅振商은 서문에서 그간의 주석들이 “비루한 견해로 두보 시를 이해하고자 하고, 망령되어 두보의 뜻을 알아맞히려려고 하고, 갈기갈기 찢어 친작하(註解本屬蠡測, 妄作射覆, 割裂穿鑿)”는 행태를 보임을 지적하고서, “두보 시의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주석에 휘둘리지 않(使少陵本來面目如舊, 庶讀者不從註脚盤旋)”고서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두시를 만나야 한다(從眞性情間覓少陵)”고 설교하였다.⁴⁴⁾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방법적 구현으로 그는 門類式 편찬과 白文으로의 杜詩 제시라는 방법을 채택한 것인데, 이는 곧 明代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독서의 새로운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피터 버크는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를 통해 백과사전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이후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문화권, 특히 유럽과 이슬람, 동아시아에서 지식은 백과사전이라는 수단을 통해 확산되

43) 張法 지음, 백승도 옮김, 《장파교수의 중국미학사》, 파주, 푸른숲, 2002, 827쪽~831쪽.

44) 이상 《杜詩分類全集》에 수록된 傅振商 서문은 冀勤 編著, 《金元明人論杜甫》(北京: 商務印書館, 2014, 536쪽)를 참고한 것이다.

었다. 백과사전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핵심 지식은 다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이는 여러 유형의 책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종류로 요리나 승마술 등 전문 기술을 다루는 사전이나 지침서 등도 포함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는 책이다. 16세기 이후 일반적인 참고서와 특정 분야의 백과사전 출판이 서구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모두 급격히 늘었다.⁴⁵⁾

피터 버크의 설명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백과사전은 지식을 확산시키고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식의 대중화에 앞장 선 백과사전과 본고의 논의 대상인 門類本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정보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 밖에도 실용성과 정보의 축적이라는 점에서도 역시 門類本과 백과사전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門類本の 출현은 그동안 이어져온 編年의 방법을 통한 작품에 대한 입체적 읽기의 방식 속에서 백과사전과 같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정보의 축적물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찍이 서경호는 송대 이후 문인들에게 詩作은 이전 시기와 달리 단순한 감성의 토로가 아닌 벽돌을 쌓듯이 세심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⁴⁶⁾ 즉 宋代 이후 문인들에게 작시 과정에서 요구되는 항목은 門類本을 통해 해당 소개와 관련한 활용 가능한 詩語와 詩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黃庭堅이 제안한 ‘點綴成金’과 ‘換骨奪胎’, 明代 북고주의자들이 제창했던 ‘詩必盛唐’의 구호는 作詩의 과정에서 ‘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수요는 곧 백과사전식의 門類詩集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門類本の 출현은 ‘杜詩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

45) 피터 버크 지음, 이상원 옮김,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서울, 생각의 날개, 2015, 164쪽~165쪽.

46)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506쪽~507쪽.

기보다는 ‘杜詩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으로, 杜詩를 하나의 정보와 지식으로 간주한 채 이를 활용하고자 한 비교적 명확한 목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宋과 明代 역시 門類本은 編年本에 비해 통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清代에 접어들면서는 門類本이 아예 제작되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門類本에서 나타나는 항목 설정의 어려움과 적절성의 문제와 더불어 여전히 編年으로 대표되는 ‘知人論世’의 관점에 의거한 시 읽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門類本의 출현은 宋代 이후 출현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더불어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발로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문헌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杜甫詩集 가운데 門類本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의 측면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두보는 역대 문인들에게 있어 시학의 전범으로 인식되어왔던 바, 杜甫詩集 가운데 門類本에 대한 고찰은 전통 시기 문인들의 시를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실 杜甫詩集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編年은 ‘知人論世’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을 두고 그가 경험한 다양한 인생 역정에 다가서는 방법인 것이다. 그에 비해 門類本은 ‘어떻게 杜詩를 읽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보다 ‘杜甫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知人論世’를 근간으로

47) 임도현은 조선시대 간행된 두보시집 가운데 편년본보다 문류본의 간행이 많았음에 주목하여 이는 당시 조선 문인들에게 두보 시에 대한 체계적 이해보다는 단편적 지식 습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며, 더불어 편년에 대한 학술적 자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임도현, <조선의 杜甫시 학습서의 특징>, 《한국문화》 제72호, 2015, 208쪽~209쪽.

한 전통적 시 읽기의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역대 門類式 杜甫詩集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門類本 출현의 배경과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전통 중국 사회에서의 지식 형성의 일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다만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몇몇 문헌들은 잔질만이 전해지거나 희귀문헌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 열람이 쉽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또한 門類本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역대 주요 문인들의 門類本 제작 현황 및 특징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추후 연구 과정에서 보태어질 것임을 밝힌다. 덧붙여 마지막으로 宋代 간행된 《分門集註杜工部詩》와 明代 간행된 傅振商의 《杜詩分類》에 제시되어 있는 작품 분류 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1〉 《分門集註杜工部詩》의 분류체계

分類	卷	작품 수	分類	卷	작품 수				
月門	1卷	律詩 21首	燕飲門	11卷	古詩6首, 律詩21首				
星河門			紀行上門		古詩40首				
雨雪門			紀行下門		律詩37首				
雲雷門			述懷上門		古詩24首				
四時門	2卷	春:古詩1首,律詩40首 夏:古詩3首,律詩4首 秋:古詩5首,律詩20首 冬:古詩4首,律詩9首	述懷下門	12卷	律詩49首				
						節序門	疾病門	13卷	古詩2首, 律詩2首
						千秋節門			懷古門
						晝夜門	3卷	古詩2首, 律詩21首	古跡門
夢門	時事上門	古詩31首							
山岳門	4卷	古詩3首, 律詩3首	時事下門	15卷	律詩44首				
江河門			邊塞門		古詩17首				
陂池門			將帥門		古詩4首, 律詩6首				
溪潭門			軍旅門		古詩2首, 律詩7首				
都邑門			文章門		古詩2首, 律詩14首				
樓閣門	5卷	古詩4首, 律詩35首	書畫門	16卷	24首				

登眺門		律詩9首	音樂門		古詩3首, 律詩5首
亭榭門		古詩3首, 律詩8首	器用門		古詩4首, 律詩3首
宮殿門	6卷	古詩2首, 律詩5首	食物門	17卷	古詩8首, 律詩4首
宮詞門		律詩9首	投贈門		古詩1首, 律詩6首
省宇門		律詩5首	簡寄上門	18卷	古詩18首
陵廟門		古詩2首, 律詩14首	簡寄中門		律詩13首
居室上門		古詩11首	簡寄下門	19卷	律詩52首
居室下門		律詩38首	懷舊門		古詩3首, 律詩9首
隣里門	7卷	律詩4首	尋訪門	20卷	古詩3首, 律詩13首
寄題門		古詩5首, 律詩5首	酬答門		律詩8首
田圃門		古詩2首, 律詩5首	惠貺門		古詩1首, 律詩3首
仙道門		古詩3首, 律詩1首	送別上門		古詩19首
隱逸門	8卷	古詩2首, 律詩4首	送別下門	21卷	律詩80首
釋老門		古詩8首, 律詩8首	慶賀門	22卷	古詩1首, 律詩4首
寺觀門		古詩4首, 律詩15首	傷悼門		古詩8首, 律詩22首
皇族門	9卷	古詩3首, 律詩9首	鳥門	23卷	古詩7首, 律詩25首
世胄門		古詩4首, 律詩2首	獸門		古詩8首, 律詩7首
宗族門		古詩6首, 律詩32首	虫門		律詩3首
外族門		古詩3首, 律詩6首	魚門		律詩2首
婚姻門		古詩2首, 律詩1首	花門		16首
園林門	10卷	古詩3首, 律詩24首	草門	24卷	3首
果實門		古詩1首, 律詩9首	竹門		律詩3首
池沼門		律詩9首	木門		古詩7首, 律詩8首
舟楫門		律詩11首	雜賦門		25卷
梁橋門		律詩3首		총 72門(79項) 1388首	

〈참고 2〉 傅振商 《杜詩分類》의 분류체계

分類	分體	分類	分體
紀行類	五言古	寄贈類	五言古
	七言古		七言古
	歌行	懷舊類	五言古
	五言律		七言古
述懷類	七言律	五言律	
	五言古	尋訪類	五言古
	七言古		五言律
	五言律	惠貺類	七言律
七言律	五言古		
懷古類	五言古	送別類	五言古
	七言古		七言古
時事類	五言古		五言律

	七言古		七言律
	歌行	慶賀類	五言古
	七言絕	傷悼類	五言古
	五言律		五言律
邊塞類	五言古	雜賦類	五言古
將帥類	五言古		七言古
	七言古		歌行
軍旅類	五言古		五言絕
	五言律		七言絕
			五言律
宮殿類	五言古	古蹟類	歌行
陵寢類	五言古	地理類	歌行
居室類	五言古		五言律
	七言古		七言律
	歌行		歌行
世族類	五言古	燕飲類	五言律
	七言古		七言律
	歌行	歌行	
宗族類	五言古	鳥獸類	五言律
	七言古	木類	歌行
	五言律	時事	七言絕
	七言律	火木類	七言絕
五言古	五言律		
姻戚類	五言古	宮室類	五言律
	七言古		七言律
	歌行	皇族類	五言律
時序類	五言古	外族類	五言律
	七言古	寺觀類	五言律
	歌行	天文類	五言律
	七言絕	樓閣類	五言律
	五言律		七言律
	七言律	眺望類	五言律
雷雨類	五言古	亭榭類	五言律
山河類		園池類	五言律
都城類		舟橋類	五言律
陰雨類	七言古		七言律
詩文類	五言古	文史類	五言律
書畫類	五言古	食物類	五言律
	七言古	器用類	五言律
	歌行	簡寄類	五言律
器物類	五言古		七言律

	七言古	將相類	七言律
	歌行	釋老類	七言律
品食類	五言古	果實類	七言律
	七言古		
動植類	五言古		

<참고문헌>

1. 최석원, 〈杜詩 해석 그 날조의 역사〉, 《중국문학》 제82집, 2015.
2. 杜甫 著, 王洙, 趙次公 等注, 《分門集注杜工部詩》, 四部叢刊本.
3. 傅振商, 《杜詩分類全集》, 규장각 소장본.
4. 고진아, 〈宋代 《杜集》 간행 상황에 대한 소고〉, 《중국연구》 30집, 2002.
5. 華文軒 等編, 《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 杜甫卷》, 北京, 中華書局, 2001.
6. 이노우에 스스무(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옮김), 《중국 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7. 임도현, 〈조선의 杜甫 시 학습서의 특징〉, 《한국문화》 제72호, 2015.
8. 羅竹風 主編, 《漢語大辭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1993.
9. 이영주 외 지음, 《死不休, 두보의 삶과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10. 莫礪鋒, 《杜甫詩歌講演錄》,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11. 莫礪鋒, 《唐宋詩歌論集》, 南京, 鳳凰出版社, 2007.
12. 피터 버크 지음(이상원 옮김),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서울, 생각의 날개, 2015.
13. 浦起龍 著, 《讀杜心解》, 北京, 中華書局, 2010.
14. 冀勤 編著, 《金元明人論杜甫》, 北京, 商務印書館, 2014.
15. 仇兆鰲 註, 《杜詩詳註》, 北京, 中華書局, 1999.
16.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 지성

- 사, 2005.
17. 邵寶, 《分類集註杜詩》, 서울대학교 소장본.
 18. 王永波, 〈明代杜詩學研究失誤述評〉,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 2016.
 19. 王水照 主編, 《宋代文學通論》,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20. 謝思煒, 《唐宋詩學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2004.
 21. 張法 지음(백승도 옮김), 《장파교수의 중국미학사》, 과주, 푸른숲, 2002.
 22. 張慧玲, 〈明代杜詩文獻的傳播概貌〉, 《文獻研究》第3期, 2017.
 23. 張忠綱 외 4인, 《杜集敍錄》, 濟南, 齊魯書社, 2008.
 24. 周采泉, 《杜集書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Abstract >

In order to identify the process of developing knowledge of traditional Chinese society, this study conducted a discussion on a 門類本 of Dufu's poems. 門類本 refers to the type of work that contains works by subject, unlike ordering them in chronological order. Of course, 門類本 do not make up many of the collection of Dufu's poems, but the research value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method implementation of new poetry readings that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methods.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publishing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門類本 among the Dufu's poems collection, and discussed its cultural implications.

Key Words : 分類(Category), 門類本(A collection of classified poems by subject), 杜甫(Dufu), 分類集註杜詩(Fenleijizhudushi), 分類集註杜工部詩(Fenleijizhudugongbushi)